

# 교육부 총장후보 퇴짜에 광주교대 충격

### 현 총장 임기 4일 남기고 후보 재추천 요청 공문

### 사유도 안 밝혀...23일부터 교체된 교무처장 대행체제

교육부가 광주교육대 총장에 대한 임용 제정을 거부하면서 교육대가 충격에 빠졌다. 학교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를 총장 후보자로 선정한 것 아니냐”며 대학 이미지가 실추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현 총장 임기를 불과 앞두고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갑작스런 ‘퇴짜’를 놓으면서 수장(首長) 공석 사태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20일 광주교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8일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 총장 후보를 다시 추천해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교대는 간선제 방식의 총장 선출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1일 20명으로 구성된 총장임용추천위원들의 선거를 통해 제7대 총장 후보로 김용익 실과교육학과 교수와 강효영 체육교육학과 교수를 선정, 연구윤리위원회 검증을 거쳐 9월 8일 무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한 바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후보자가 왜 떨어졌는지’ 학교 측에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용 제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새로운 후보를 선정,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가 후보 2명에 대한 총장 임용 제정을 거부하면서 현 총장 임기가 끝나는 22일 이후 총장 공석(空席)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교육대는 당장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학 교육 정책을 이끌고 나가야 할 수장이 없는데 따른 교육의 질과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 때문에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교육대가 지난달 8일 총장 후보자를 추천했음에도 한 달 넘게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가 현 총장 임기를 불과 나흘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신입 총장 임용제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명확한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은데다, 새 총장 후보를 뽑기 위한 기간을 감안하면 교육부가 ‘총장 공석 사태 장기화’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교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든 총장 후보 재추천에 대한 사유를 통보받지 못해 당혹스럽다”면서 “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곡성에 공립 대안학교

### 옛 오곡초 리모델링...2018년 개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가 곡성에 들어선다. 교육부는 20일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교육청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전남교육청을 비롯해 대구·강원·경남교육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사·도 교육청이 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형태다. 매년 5만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이 중 50% 이상이 학교 부적응 사유로 학교를 그만두지만 대안학교는 전국 25곳에 불과하다. 특히 이 가운데 공립 대안학교는 6곳뿐이어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윽한 보성 차 맛보세요” 20일 광주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10회 광주국제차문화전시회’와 ‘2016보성세계차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차를 맛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23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은 곡성 기차마을 인근 폐교인 오곡초교를 리모델링해 고교 과정 대안학교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냈었다.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이 대안학교는 60명 규모(18살), 고교학년별 과정 및 통합 과정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규 교육 과정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진로교육과 체험학습 등 대안 교육 중심의 교육과정도 편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학교는 지난 2013년부터 곡성에서 대안교육위탁기관인 심정골 짝나라를 운영해온 강재구 대표가 운영을 맡게 된다. 금융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대안학교의 성공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남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기준으로 질병·해외출국을 제외한 가사, 학업, 대인관계 등의 부적응으로 인한 전남 지역 학업중단자를 990명(고교생 775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조선대 ‘총장 선거 후유증’

### 노조 “교직원 10여명 보복 인사...총장 퇴진 운동 돌입”

조선대가 총장 선거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선거 이후 10명이 넘는 교직원을 강등하거나 퇴장 직함을 박탈하는 등 ‘유례없는 보복(?) 인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취임 한 달도 못돼 ‘총장 퇴진 운동’이 시작되면서다.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은 20일 ‘총장 퇴진’을 촉구하며 대학 본관에서 전막 농성에 돌입했다. 직원노조는 이날 오후 열린 대의원회에서 투쟁기획단을 꾸려 ‘총장 퇴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마련, 실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철 조선대 노조위원장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신임 총장 취임 이후 인사위원회가 19일 부처장급 5명을 퇴장으로 강등하고 12명의 퇴장도 퇴장직에서 배제하는 인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번 보복인사는 ‘정기인사 평정 결과, 최근 3년 평균 하위 10%이내인 보직자는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과 직원인사규정을 어겨 무효”라고 주장했다. 직원노조는 학교 내부계시판에 올린 글에서 “교수·보직자들에게 탕명인사를 운운하면서 명확한 ‘보복’ 인사를 단행했다.

이사가이 최종 결정하기도 전 공개했다”며 신임 총장, 인사 관련 담당자인 인사혁신처장, 직원인사담당 등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그동안 보직 부여에서 소외됐던 인물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젊은 층을 보직자로 임명,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한 번 보직을 부여받으면 평생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릴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 후배들을 배려하라는 취지도 반영됐다”고 노조측 보복·보은 인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선대 강현욱 법인이사장은 이날 이와관련, 대학본부에 제출한 인사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지 않고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4 해질 17:50 | **오늘의 날씨** 맑음 22:32 맑음 11:55

포근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늦은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광주	흐림	16/20	보성	흐림	15/18
목포	흐림	17/19	순천	흐림	16/20
여수	흐림	16/18	영광	흐림	15/19
나주	흐림	15/20	진도	차차흐리거나	17/19
완도	차차흐리거나	17/19	전주	흐림	15/20
구례	흐림	14/19	군산	흐림	16/20
강진	흐림	16/19	남원	흐림	14/19
해남	흐림	17/19	축산도	흐림	16/18
장성	흐림	14/19			

	오전	오후
서해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앞바다 동~남동 1.5~3.0 동~남동 1.5~3.0
남해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2.0~4.0 동~남동 2.0~4.0	앞바다(서) 북동~동 1.5~3.0 동~남동 1.5~3.0

목포	간조	만조
	10:36	05:35
	23:19	18:20
여수	간조	만조
	06:07	00:03
	18:50	12:48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	☀	☁	☀	☀	☀	☀
16/22	14/21	11/20	11/20	11/20	11/21	11/19

◇생활지수

- 식중독: 관심
- 자외선: 보통
- 미세먼지: 보통

## 정성창·허민·정병석 전남대 총장후보 압축

전남대 20대 총장 선거에 나설 후보가 5명에서 3명으로 압축됐다. 전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1800여명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를 거쳐 총장임용후보 2명을 최종 선출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조운선장관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해야”

### 시민대책위, 방선규 전당장 “페인트 칠만 했다” 발언 반발

5·18 사적인 옛 전남도청 원형 훼손 논란과 관련,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능하면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0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가능하면 (옛 전남도청의)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 인쇄실을 가지고 단체, 지역 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송의원이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시민농성 상황과 현대사 현장 보존 필요성을 언급하며 “올해 안에 광주시민과 5·18 단체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EAGLEEYED**  
이글아이드 골프화

**296g** (250g 기준)

**가볍다. 편하다!!**

ADD FG2

방수 탁월  
접지력 우수 · 친환경 소재  
100% 국내 자체 생산  
철저한 사후관리

www.eagleeyed.co.kr  
전화 상담 032)523-4075  
직영점 인천골프백화점 032)521-3075  
가까운 매장에서 구매 하시면 됩니다.